

미래를 주도할 인재



나주
 이상민 전남예고3
 전남음악콩쿠르 최우수상
 함화주 진도국악고3
 장복대 초중고무용경연대회 금상
 장주애 전남미고2
 문체부 장관기 전국학생시이래대회 대외신 기록
 서민회 나주공고3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기계설계 /CAD 금상
 김준희 나주공고3
 전국기능대회 장려상
 전국기능대회 장려상
 임규원 중앙대고2
 지역 문화공간 조성 연구

장성
 구희엽 토마토 재배 (1994년생)
 스마트팜에서 토마토 재배 중
 복합환경재이시스템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지마경 희망
 기민정 포항공과대학
 녹색 전남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연구
 김다혜 장성여중2
 독서토론인재

화순
 신원주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바를리움에 오디디 중
 김주현 호남북중1
 복합환경재이시스템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지마경 희망
 기민정 포항공과대학
 녹색 전남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화를 위한 전략 수립 연구
 김다혜 장성여중2
 독서토론인재

해남과 깊은 인연...1월 6~ 10일 가학산서 도올학원 열고 미래인재 교육

도올 김용욱 인터뷰



도올이 전남인재에게 줄 책자에 지역특성을 감안해 작성한 인사말.

방 청소를 끝낸 도올 김용욱 선생과 큰절을 하고 마주 앉았다. 얼굴에는 세월뒀인 지의 주름이 잡혔지만 노자, 공자, 사마천을 통해 역사와 도덕을 강조하던 기와 해답은 여전히 있었다. 자신이 남전남인임을 일흔이 넘어 알아버린 그는 전남의 후학을 위해 오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해남 가학산서에서 도올학원을 연다. 새천년 인재 육성을 위한 7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설득과 뒤늦은 도올의 뿌리 찾기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는 매일 제자들과 강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4박5일을 함께 보낼 전남 인재들의 교재 낭비와 예산절약에 일일이 그림과 함께 인사말을 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 해화동 통나무집에서 만난 도올 선생에게 해남과의 인연, 전남의 인재 육성을, 미래 인재상, 새롭게 보는 전남, 새해 덕담 등을 물었다. 1948년생. 새해 72세가 되는 도올은 지난 2018년 6월 제자들로부터 남도올야(이것이 도올야)너를 선물 받았다. 전국, 세계 곳곳의 제자들이 도올과의 인연을 적어 작은 엽서 책자다. 고회연에서 그는 필선지에서 파노를 치고도 산처럼 하고 싶고, 부용산 등 부르고 싶은 노래에 피아노 반주를 직접 해보고 싶다고 했다. 남짓한 인생을 다짐한 도올은 소망이

도올의 잠재적인 역량을 21세기 새로운 에너지로 분출시켜야 한다. 5인18 민주화운동 이후 정몽준을 지지하며 지역을 지키기도 했다. 그러한 전라도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지도자를 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키워내는 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전남도청에서 연락이 왔다. 지자체 단위로 인재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저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 마치 퇴계의 도산서원과 지방의 향교가 결합한 형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도올서원이 걸려온 인재들이 김용욱 전남지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설득과 뒤늦은 도올의 뿌리 찾기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도올이 보는 전남, 어떠한 곳인가."
 "전남은 고대사로부터 새로운 정미가 필요하다. 전세계 방대한 고인들의 절반이 남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막강한 허부구조를 배경으로 한 절대권력이 있었다는 의미다. 중요한 전남에 일찍이 문화가 발달했으니, 우리 민족 예술의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특정한 문화가 어렵지만 파토스(pathos), 즉 비감(悲感)이었다. 중요한 만큼 치열하게 취미를 당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 때문에 감성이 묻어 있는 예술이 꽃피었을 것이다. 전남, 더 나아가 전라도를 쉽게 해석하고 상품화하기 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은 젊은 느낌, 능숙한 무엇인가가 있는 곳



전남도 각 잠재력 갖춘 인재 발굴

9개 분야 926명 중 77명에 우선 지원

목표
 운이나 전남예고3
 일반 전국고교생안회고시연대회 우승
 정재희 전남예고3
 조선대 전국학생미술대회 최우수상
 서민회 전남예고3
 전국목표성적1
 전국스마트초사수권대회 대상
 최기영 목포영호중3
 전국스마트초사수권대회 대상
 최두희 목포중고1
 한국학생과학올림피아드 최우수상
 김우영 전남예고3
 전남국악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최정은 목포청호중1
 광산대 음악콩쿠르 1등
 이기원 전남예고3
 나주전국국악경연대회 종합대상
 천송희 전남예고2
 순천전국국악경연대회 학생부 종합대상
 김우아 전남예고1
 호남예술제 최고상
 장원혜 목포영호중3
 김영희목포 주보 전국그림그리기대회 대상
 장주희 목포중앙고2
 조선미술신문 최우수상
 김민서 목포덕인고2
 전국학생미술대회 최우수상
 전국목표성적1
 김우영 전남예고3
 강휘은 목포중앙고2
 노익진 목포사당대 대상
 추송지 목포덕인고1
 평화통일 전국무용대회 대상
 김지우 목포영호중3
 함안대 전국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 금상
 김민서 전남예고3
 장복대 초중고무용경연대회 금상
 임규원 중앙대고2
 조선대 전국초중고무용경연대회 특상

무안
 최송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증학부1
 전국과학전람회 특상
 양다을 전남예고3
 호남예술제 최고상
 노희영 남익중3
 전남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전남대 전국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최우수상
 이서은 전남예고3
 정은 전남대무용경연대회 대상
 김민서 목포덕인고2
 목서중심 웹마와 AI오리클레이션 활용 전남 관광산업 육성 연구

진도
 이희민 진도국악고2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최은희 진도국악고3
 코미언 댄스페스티벌 2위
 이지우 진도국악고3
 화순전국국악대제전 종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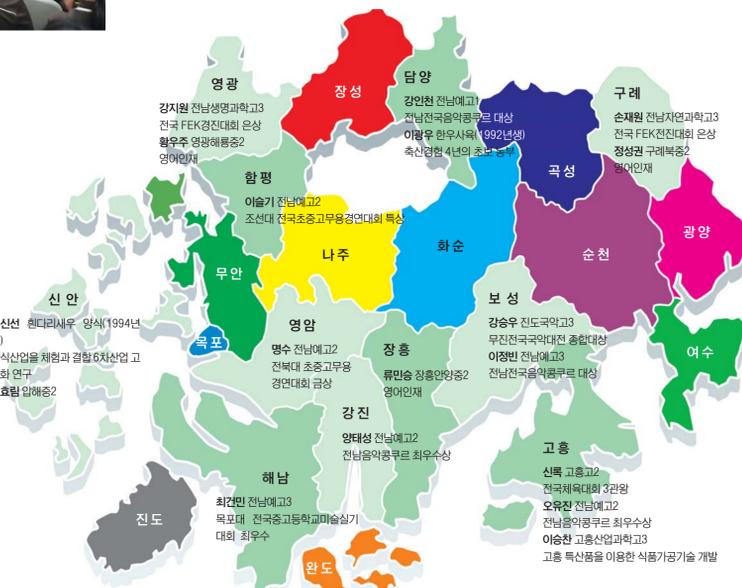
완도
 고은서 전남예고3
 중앙대적 단국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대상
 오진영 유자농사(1979년생)
 유자 가공품 판매중적 주면 농가 생산품까지 지원
 최진성 광어재정복 양식(1993년생)
 노익진이 참인 스마트양식기술 도입 희망
 김동주 광어 양식(1992년생)
 광어양식 판매시스템 연구

여수
 김세진 여수중고2
 전국체육대회 1위
 이태환 여수중고2
 남원코리아오픈 대회신기록
 김희원 여수중고1
 전국기능대회 금메달

곡성
 양숙희 진동중(1982년생)
 토란지적 토란육적 토란떡 등 다양한 식 품 개발
 김태희 곡성중2
 파워포인트적 역할적 문서실사시 자격 취득

광양
 박기덕 광양예고1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정은석 광양고3
 국가대표 삼배구(조정)
 이호준 순천고3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순천
 문지은 여수중고3
 전국체육대회 2위
 조유정 순천호산고2
 제회 전국학생연합보통무용경연대회 대상
 박영민 순천고3
 전남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조서민 순천대학교1
 규제프리존과 스마트팜 연구
 신왕아 순천대학교1
 교육 선진국들의 특성을 접목한 전남형 교육발전방안 연구
 송성훈 순천대학교1
 전남 이미지 메이킹 사업 연구



자연적 농촌문화가 살아있는 유일한 곳...산업발전이 파괴해서는 안돼 진보적 흐름 선취해 온 전라도인들이 새 모델 구상으로 농촌 살려내야 문화격예의 겪음식 살아있는 전남...자연과 조화 이뤄 경제발전 이끌 것

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남과의 인연을 알고난 뒤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다.
 ▲사실 과거에는 집안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공간이 들어도 철학적 입장이 있어서 표현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열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해 순수한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해 일관성도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집안 이야기를 소상히 듣고 나서(목포대 도서관연구원 만남주 교수)가 도올 선생의 가계도를 조사한 뒤 알려줬다고 한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깊은 애착을 갖게 됐다. 4대조 김중현은 임오군권(1882년) 당시 돈화문 수문장이었으며, 평성황후를 피신시킨 공으로 해남관감을 제수받고 종2품 전라도병마절도사, 중추원 직임이관을 지냈다. 호는 해은(海雲)으로 해남에서 은신하라는 명성황후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부모의 묘까지 충북 제천에서 이장시켰으며, 김중현과 그 아들들이 저의 할아버지인 김영학까지 해남에 묻혔다. 김영학의 작은 아들이 제 아버지다. 어머니도 해남 출신 사람이다. 어머니에게 각별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저는 해남 발전만 가면 눈물이 날 정도다. 지난 밤에 처음으로 해남에 가 대흥사 등 김중현의 공적비가 세워진 5곳, 그가 유학 양성을 위해 설립한 담양 죽림사 취사당 등을 찾았다(도올은 전남도의 초창으로 지난 2019년 4월 도청에서 강의한 뒤 처음으로 김중현, 김영학 등 조상의 흔적을 둘러 봤다. 대흥사는 그가 2년을 기거하고, 수차례 찾아 머물렀던 곳이지만, 중추부의 공적비가 있다는 사실은 이 방편으로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송기인의 히트도 이러한 느낌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배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월 6일부터 해남 가학산 서천유림원에서 도올서원을 연다.

▲기대가 크다. 4박5일간의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에서 69명의 신청서를 간택받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프로필을 읽고 있다. 눈여겨 나오는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審問), 명변(明辯), 독행(獨行) 등의 5개 반으로 나눠 노래도 짓고, 연극도 하며 눈여겨 전남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생각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를 전남의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 학생들 스스로 잠재된 천령(자기 자신의 역량)을 각성하고 그것을 걸러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나주 반남고분고, 화순 고인들 등에도 가보며 전남 문명의 근원을 살펴보고 전라도 사람들이 뿌리 깊은 의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 저와 김용욱 전남지사 명의의 출렁장(出動章)도 만들었다.

=우리나라 미래인재상은 무엇인가.
 ▲조선왕조에서 최고의 히트작은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이겠다. 첫 대목에서 율곡은 초학(처음 배우는 때)에는 반드시 입지(立止), 즉 뜻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뜻은 성인의 뜻을 의미한다. 결국은 미래 인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적인 역량이다. 사람은 기술적인 성장, 외부적인 성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통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인재)는 전성전력으로 통일을 성취하고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갈등,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타인을 포용하고, 여러 직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야 한다. 전남의 젊은 학생들이 바른 입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바람이 있다. 소신껏 있는 힘을 다해 가르치면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전남이 새천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조연을 부탁한다.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는 안 했다. 저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품은 기계화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한다. 생명의 조건은 자연이다. 어떠한 산업적 발전도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전남은 특별히 자연적인 농촌 문화가 살아 있는 유일한 곳이며, 문화적인 전통의 정수를 지켜 나가야 한다. 전남만이라도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한다. 농촌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제가 우리나라의 3대 과제로 제시한 것이 남북화해,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필요로운 농촌이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국토의 지평이라는 공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한다. 전남에서 시도하고 있는 농민수당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 농민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없어 농민이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농촌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전남의 지성들이 꼭붙는 편견을 가지고 미래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오면 된다. 전남은 아직도 움츠러들고 있다. 전남에서 시도하고 있는 농민수당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 21세기 모델이 나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새해 덕담 한 마디 부탁한다.
 ▲우리 역사에서 진보적인 흐름을 선취해온 사람들이 전라도인이다. 대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보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이러한 혼란이 가까운 현실이오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농식품 수급안정, 식품산업육성, 농수산물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국민이 내일을 위한 세력산
보다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www.kpx.or.kr

전천후 전력 비즈니스 플랫폼, 전력거래소가 만듭니다

전력산업을 밝히는 **별**
전력거래소

대한민국의 맑고 따뜻한 거울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안정적 전력수급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시대를 열어갑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장단기 전력거래 운영

가격결정, 계약, 정산, 결제를
통한 전력시장 운영

24시간 전력거래를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다양한
전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기를 아끼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친화적 운영

smart kpx 전력거래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빛가람동
 TEL 1061.330.8101 FAX 1061.330.8200